

21세기 치과보철이론의 새 Paradigme - 20 세기를 돌아보면서 -

이재봉 아주대병원 치과



연자 약력

서울치대졸 ('77)
서울치대박사학위 ('86)
부산치대조교수 ('87)
경찰병원치과과장 ('97)
한일병원치과부장 ('98)
아주대 의대 치과학교실 부교수 (현재)

보철 이론이 급격히 변함에 따라 한때 가장 훌륭한 치료 방법이라고 소개되어 널리 시술되었던 방법이 실제로는 환자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 같다. 치과 학문이 본격적으로 발전한지 100년 밖에 되지 않으며, 우리나라에 최초의 치과가 생긴지 80년도 채 못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보철이론은 부단하게 발전을 하여 왔는데, 20 세기에 풍미 하였던 치과보철이론의 변천을 검토하여, 그 문제점들을 모아 새로운 천년의 원년인 2000년에는 보다 완벽한 진료를 할수 있도록 본 제목의 강의를 마련 하였다.

목 차

가. Occlusion: Condylar guidance에서 Anterior guidance 로 변화

1. 이론
2. 교합면
3. Centric relation
4. 악관절 증후군

나. Crown and Bridge: 이론 위주 치료에서 실용적 치료로 변화

1. Pontic Size
2. Pontic Type
3. Margin Location
4. 인접치, 대합치 삭제
5. 지대치형성
6. Impression

다. 치주보철: 완전한 치료에서 불안전한 상태의 유지관리로 변화

1. Crown to ratio
2. Ante's law
3. 이쑤시개 사용

라. 기타: 정보화로 세부전문화 및 통합화 과정을 거칠것으로 예상됨.